

강론 ...

선교 황금어장 군에 그물을



정유진 신부
(군종 · 충용성당)

군종교구는 군사목 60주년 이 되는 2010년까지 군 복 음화율 25% 달성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행 중입니다. 어렵고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은 군대야말로 선교의 황 금어장이기 때문입니다. 얼

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서 세례를 받는지, 타 교 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논산 훈련소에서만도 일년 에 만명 이상 됩니다.

다만 많은 부분, 군 선교에 있어서 그물만 던지면 되는데, 그 그물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군종신부로 살아가면서 제일 부족한 것 은 '사람'이었음을 체험합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우 스개 소리로 전신자의 간부화라는 말을 씁니다. 모 두 달라 붙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 몇 안되는 신자들이 정말 열심히 사목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중 열 가정은 연말에 이동이 계획되어 있 습니다. 답답합니다. 또 누군가를 채워주시겠지만 알 수 없는 내년은 또다시 혼자 복치고 장구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교구 사정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때로는 타 교구 신부들이 부 럽기도 합니다. 일례로 요즘 제가 해안 초소 봉성체를 다닙니다. GP 같은 곳이기에 한번 들어가면 아 흡달 정도 미사에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 수님을 모시고 기쁜 발걸음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한개 초소에 40여 명의 병사들이 있고, 그 중 천주 교 신자는 2-3명 뿐인데, 신부가 뭐 다른 거 안 가 저왔는지 쳐다보는 많은 눈들을 보면 예수님만 모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달에 18개 초소를 다녀보 니까 때로는 봉성체를 그만 두고 싶어집니다.

물론 군종교구 세례의 그 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걱 정도 됩니다. 신자 공장이라는 말처럼, 세례만 주면 그만이라는 비판과 질책이 나올만 합니다. 다행히 서울 교구와 군종교구 사이에 군세례자들의 냉담 비율 최소화를 위해 협조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세례받은 병사들을 제대와 함께 일반 본당에 연계해 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군종신부로 살면서 제일 뿌듯했던 일도 병 사들이 제대하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 다. 누구는 청년 성서를 열심히 해서 율동찬양을 한 다는 등, 저와의 2년여 작은 인연이 그 사람의 신앙 에 확고한 확신이 되었으면 하는 것, 이게 바람입니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군종교구를 위해, 군사목하 시는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순교자 이순이 루갈다(1781-1802)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그녀(일명 유희, Niou-hei)는 이윤하와 권씨 사이에서 5남매중 셋째로 서울에서 태어나는데, 부친 이윤하는 조선 태종의 첫째 아들이었던 경령군의 6대손이며 '지봉유설'로 유명한 이수광의 8대 후손이다. 이윤하는 일찍부터 남인소장파의 일원으로 이승훈, 정약전 3형제들, 권철신 등과 함께 서학운동에 관련된다. 그녀의 모친 권씨는 한국교회창설의 주역이던 권철신, 권일신의 누이이다.

왕손으로서 한국천주교회의 특징이기도 했던 가족적 전승(家族的傳習)으로 신앙생활의 덕행을 쌓았던 그녀에 대하여 달레의 교회사는 이렇게 전한다. '그녀는 강직한 성격, 상냥하고 열정적인 마음, 충명을 타고났으며, 덕이 많은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모든 생각은 영혼 구원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14세이던 1795년에 주부모 신부로부터 지극한 정성, 준비, 기쁨으로 첫영성체를 하는데, 이때부터 평생동정(平生童貞)으로 살면서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그러다가 16세가 되던 해인 1797년에 전주지방의 양반, 선비, 신앙의 반석(磐石)이던 유항검의 큰아들 유중철(요한)과 혼인식을 올리고 동정부부(童貞夫婦)의 가약을 맺는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시가(媿家)의 만며느리로서 출중한 덕행으로 시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과 화목하며, 착한 모범으로 집안과 이웃들에게도 향기를 드러낸다. 또한 그녀의 남편 유중철 요한도 성실하고 굳은 신앙과 열렬한 애덕을 가졌으며, 충실하고 올바른 생활로 젊었어도 점잖고 진중한 어른으로서 살았다.

그녀는 남편과의 동정부부생활(童貞夫婦生活)을 자신의 옥중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우리 양인의 소원을 천주 유희하사 특별하신 총은이라... 유감이 자심(滋甚)하여... 마음이 얼음장 밟는 것 같음이라... 이길 바를 간구간구하옵더니... 동정을 보전하여 피차에...신



애(信愛)의 정은 태양과 같음이라...'

굳은 신심, 우애, 남편이던 요한을 오롯하게 사모하던 열녀, 동정의 덕행을 하느님께 봉헌하던 그녀에게 위기가 왔다. 시댁가족 모두가 처형과 유배로 풍비박산 되면서 그녀는 벽동군 관비로 결안 난 것이다. 이에 그녀는 순교시켜 주기를 관장에게 항의하지만, 유배길에 나서야 했는데, 귀양지로 가는 길에서 간절하게 순교의 영광을 기도드린다. 그리고 백여리를 가다가 다시 잡혀와 옥에 갇힌다. 그녀의 옥중서간은 이때에 저술되는데, 미려 숭고(美麗崇高)한 글로서, 오라버니인 이경도, 동생인 이경언의 옥중수기와 함께 책으로 엮여져서, 그 시대의 교우들과 지금의 우리에게도 귀중한 신심서가 되고 있다.

그녀는 1801년 11월 14일 전주옥중에서 23세로 교수순교(絞首殉教)한 남편 유중철을 따라, 1802년 1월 31일(음력 1801년 12월 28일), 정숙하고 품위 있게 스스로 옷을 벗고 손발도 묶지 못하게 한 후, 참수순교(斬首殉教)의 칼을 받으니, 그때 그녀는 20세였다.

(참조: 김옥희, 한국천주교여성사 I 과 신유박해 순교자들,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일을 하는 기쁨

집안일을 하면서 게을러질 때면 한 수도자의 말을 생각하며 긴장의 끈을 조인다. 그분은 자신의 일 중에서 청소하는 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자신이 봉사하는 자리가 깨끗하게 되살아날 때마다 행복해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신이난다고 한다.

수도원이나 수녀원은 그런 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언제나 소박하고 단아한 빛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다.

하느님의 천지창조(창세 1,1-2,2)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은 신성함을 지닐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성취감도 선물한다.

어느 단체의 정기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함열에서 오신 자매님이 집에서 농사지는 귀한 먹거리를 가져와 고맙게 먹은 적이 있다. 일을 하고 수확을 하면서 가슴 가득히 느끼는 기쁨과 누군가 맛있게 먹을 거라는 희망은 봉사의 또 다른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다. 봉사는 파업이나 도중하차 게으름을 만들지 않는다. 농사는 작은 씨눈 하나에서 수확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또 누군가의 작은 손놀림은 정지된 시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 되어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이어나가게 하



는 생명의 길이라 생각하면 그 신비에 감사하고 싶다.

오늘도 지나치기 쉬운 모퉁이 작은 공간을 되살리는 기쁨을 말씀하신 한 수도자를 생각하며 화분에 물을 주고 비를 들고 갈래질을 하고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며 하루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삶을 살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양동이와 식물들 그리고 가래와 땅—제대 위의 전례도구처럼 취급하라” - 베네딕토회의 가르침에서〉

김유경 (루피나) 그림 : 황의성(세레자 요한)

입당송 신명 32,10-12 참조

주님께서 그를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으며,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도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들어 올려 깃털 위에 얹어 나르듯, 주님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제1독서 이사 66,10-14c

화답송 시편 131 (130), 1,2,3

◎ 주님, 제 영혼을 주님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제2독서 1코린 7,25-35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천마반오소서. 아버지께서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8,1-5

영성체송 마태 18,3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황성하의 레겐스부르크 대학 연설과 관련 교황청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의 선언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하신 연설 가운데에 일부 구절을 둘러싸고 일어나게 된 이슬람계의 반응에 대하여, 본인은 이 선언으로 교황청 공보실장을 통하여 이미 제시된 해명을 더 명확히 밝히려 한다.

- 이슬람에 대한 교황님의 입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우리 시대(Nostra Aetate)’ 에 표현된 것과 명백히 일치한다. “교회는 또한 무슬림도 존중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신을 흠송하며,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순종하였듯이 그들의 감추어진 뜻에 충심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즐겨 주장한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언자로 받들며, 또 그분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여 때로는 그분의 도움을 정성되이 간청하기도 한다. 또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시어 공정하게 갚아 주실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따라서 그들은 도덕 생활을 존중하며 특히 기도와 자선과 단식으로 하느님을 섬긴다”(3항).

교황님께서서는 일반적으로 종교와 폭력의 관계라는 주제에 관한 몇 가지 성찰들을 제시하고, 어느 편에서든지 종교가 동기가 되는 폭력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반대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가운데에서 우연히 마누엘 2세의 이 견해를 인용하셨을 뿐이다.

신앙의 감추어진 뜻에 충심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즐겨 주장한다.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예언자로 받들며, 또 그분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여 때로는 그분의 도움을 정성되이 간청하기도 한다. 또한 하느님께서

- 종교 간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는 교황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교황님께서서는 2005년 8월 20일 독일 쾰른에서 이슬람 공동체들의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사이의 대화가 “부차적인 선택으로 치부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과거의 교훈에 힘입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화해의 길을 추구하여야 하고 서로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p>교통 사고 보상 상담 손해사정인</p> <p>황 선 주 (프란치스코)</p> <p>☎(063)236-1040 H · P 011-659-4985</p>	<p>남문문구도매센터 (교우분들 특별할인)</p> <p>문구 · 사무용품 · 대형마트식 매장 주차장 완비, 배달 가능</p> <p>대표 원수관(야고보) · 심경이(마리아)</p> <p>다가동 우체국 옆 ☎(063)283-3352 / H · P 011-652-7721</p>	<p>새롬 리모델링 리모델링/싱크대 제조 전문업체</p> <p>김영대(가브리엘)</p> <p>문의 : 275-9236~7 011-294-6471</p>	<p>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 필리핀) 이종관(도민고)</p> <p>☎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p>
<p>28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p> <p>주최 : 마신부님(Rev. Brendan MacTale)</p> <p>대학생 : 1/7~2/25(7주) 599만원(예정) 초 · 중생 : 1/7~2/4(4주) 409만원(예정)</p> <p>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p>	<p>고급 생선(도매, 소매)</p> <p>100번 수산</p> <p>이복동(마테오) 이미숙(리디아)</p> <p>삼천동 농협공판장(내) 227-7877 / 011-652-8045</p>	<p>치질 · 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p> <p>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p> <p>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p>	<p>16년 역사 수맥탐침대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p> <p>대표 : 이경복 바오로</p> <p>주소 : 100-809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1층 수맥탐침대 김명관 전주 1588-5335</p>



-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의 연설에 인용된 비잔틴 제국의 황제 마누엘 2세의 견해와 관련하여, 교황님께서 그의 견해를 자신의 견해로 삼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교황님께서서는 단지, - 그 본문을 더 완전하고 주의 깊게 읽으며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학술적인 맥락에서 - 일반적으로 종교와 폭력의 관계라는 주제에 관한 몇 가지 성찰들을 제시하고, 어느 편에서든지 종교가 동기가 되는 폭력을 분명하고 철저히 반대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가운데에서 우연히 마누엘 2세의 이 견해를 이용하셨을 뿐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최근에, 당신의 사랑하는 전임자이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바람으로 1986년 10월 아시시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간 기도 모임 2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셨다는 것을 상기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폭력의 표현들은 종교의 탓이라기보다는 문화적 한계의 탓이다. 종교는 이러한 한계와 더불어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발전해 가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위대한 전통 종교들 안에는,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와 사랑의 윤리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끈에 대한 증언이 새겨져 있다."

- 따라서 교황님께서서는, 당신 연설의 몇 가지 대목이 이슬람 신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로 들릴 수 있고, 당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유감스러워 하셨다. 한편, 이슬람 신도들의 종교적 열의 앞에서,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에 대한 경시, 그리고 거룩한 것에 대한 조롱이 자유의 행사로 간주되는 냉소주의"를 삼가도록 세속화된 서양 문화에 경고하셨다.

- 교황님께서서는 이슬람교도들을 향한 존중을 강조하며, 무슬림들이 당신의 연설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살아 계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신"께 대한 증언과 "온 인류를 위하여 사회 정의와 도덕 가치, 평화와 자유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증진"(비그리스도교 선언, 3항)하기 위한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신다.

교황님께서서는 이슬람교도들을 향한 존중을 강조하며, 무슬림들이 당신의 연설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온 인류를 위하여 사회 정의와 도덕 가치, 평화와 자유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증진(비그리스도교 선언, 3항)하기 위한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신다.

2006년 9월 16일

<p>맨 얼굴이 더 예쁘다 천연발효화장품-아폴리(www.epolli.com) 아토피, 여드름, 기미 등 문제성피부 효과탁월 봉나무추출(7분 원료)-천연머리염색제 황진숙(안젤라) 문은주(실비아) 문의: 228-7718, 011-9627-7718 -체인점 모집같이 일하신분: 교육무료-</p>	<p>엠마오하우스 펜션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도 관광오시는 신자여러분의 여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차량 및 호텔, 펜션, 민박) 문의: 010-4733-5005, 064-752-6159 대표: 최순옥 (가밀라)/고세영 (영주 바오로)</p>	<p>작은 예수수녀회 성소모임 주제: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 일시: 2006년 10월 8일 오후 2시 장소: 수녀회 본원 문의: 02-462-7970, 011-9939-7970</p>	<p>서신동 성당 사무원 구함 1. 자격: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미혼여성 컴퓨터 워드 능통한 자 2. 제출서류: 이력서, 세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3. 제출처: 서신동성당 사무실 274-9260 4. 제출기한: 2006년 10월 10일까지</p>
<p>제주 성이시들 피정 일시: 10월 13~16일, 10월 18~21일 10월 22일~25일 장소: 제주 성이시들 목장내 신청: 02-773-1455 지도신부: 임피제 파트리치오 신부</p>	<p>간호사 모집 모집인원: 0명 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신규, 3년 미만의 경력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예정)증명서 조건: 출퇴근 가능한 분,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간호사 문의처: 245-5118-9 성 바오로 복지병원</p>	<p>명혜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중학부 2학급(22명) 지원자격: 초등학교 졸업자, 특수학교 초등부과정 졸업자 및 2006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원서교부 및 접수: 2006년 11월 13일까지 운영기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문의: 031-406-1137 안산시 명혜학교 http://www.myhe.sc.kr</p>	<p>충주성모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사단장 재) 1. 대상: 시각장애인으로서 교육 및 직업 재활을 희망하는 유.초.중.고등부 (재활과정 포함) 대상자 및 중도실명인 2. 모집기간: 연중 수시 모집 3. 특전: 성심맹아원 입소, 취업알선, 대학진학 지도 등 4. 상담문의: 043-852-1374, 843-1374 http://www.chungjusc.kr 학교법인 청주가톨릭학원 충주성모학교 (시각장애 특수학교)</p>



교구장 일정

• 신학교 이사 주교회의
10월 2일(월)~3일(화) 오후 2시

미사 · 행사 · 모임

- **교구 성직자 워킹 월레미사**
10월 2일(월) 오전 11시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전주 월레미사**
10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제12기 자원봉사자 학교**
10월 2일(월) 오후 2시 나운동
- **추석절 워킹미사**
10월 6일(금) 낮 12시 소리개재 모지
천주교 전주지구 모지관리위원회
- **서전주하나회 미사**
10월 8일(주일) 오후 2시 삼천동
- **10월 좋은영화**
10월 4일(수) 추석연휴로 쉽니다.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 (9/17~23)

익명(소양성당 교우)	1,000,000
익명	10,000,000

제4회 전주교구 테마 영상작품 공모전

공모주제 : 선교, 복음, 봉사

접수기간 : 2006. 9. 11~10. 20
(우편접수는 당일소인 유효)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 : 10월말 예정
(교구일정으로 조정)

작품접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jcatholic.or.kr)



문의 : 285-0041

교사 채용

자격 :
1. 유아교육학과 졸업자
(유치원 2급과 보육사 자격증 소유자)
2. 3년 이상 경력자(몬테소리 교육이수자)
3. 가톨릭 신자로서 사명 의식이 투철한 자
기간 : 2006년 9월 30일
교사 채용 수 : 1명
문의 : 212-1618, 011-251-5556
팔복성모 어린이집

기타

• **천주교 전주교구 성가경연대회**
일시 : 10월 14일(토) 오후 4시
장소 : 전주 중앙 성당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문의 : 교구사목국 285-0041~3
성가대연합회장 011-650-3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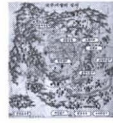
• **쌍백합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쌍백합'은 교구 안에서 형제 자매와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계간지입니다.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쌍백합'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정기구독 안내(285-0041 홍보국)
- 1년 정기구독료 : 10,000원
후원 계좌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 유지재단

• **가정상담실 안내**
가정문제를(가족문제, 부모·자녀문제, 부부문제, 혼인강좌, 자연가족계획법등) 전화로 상담해 드리며 원하시면 개인 상담도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나누어요
문의 : 281-0142로 변경되었습니다.

• **평화방송 TV '특별기획드라마-성 김대건'**
평화방송 TV가 김대건 성인 순교 16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드라마-성 김대건'을 10월 5일부터 사흘 동안 연속방송 한다.
방송일시 :
1부 10월 5일(목) 08:00 15:00 22:00
2부 10월 6일(금) 08:00 15:00 22:00
3부 10월 7일(토) 08:00 15:00 22:00
1~3부 10월 8일(주일) 15:00~18:00

• **성모 전문 요양원 개원**
입소자격 :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치매, 뇌졸중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증명서 1부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치매, 중증질환, 전염병 등 확인용)
문의 : 063) 453-7501~2

전주지방의 성지 고지도(古地圖) 수건 판매



교구 사목국에서 '전주지방의 성지 고지도(古地圖) 수건'을 제작, 성지를 찾아오는 순례자들과 분당 행사의 기념품 용으로 판매합니다. 본 지도는 정조(1776~1800)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지방의 고지도로서 현재의 지형과 많이 다르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급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 교구청 사목국 285-0041

• **성 바오로딸 수도회 '책 바꿔보는 날' 캠페인**
'잡자는 책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성 바오로딸수도회는 10월 전교의 달을 맞아 '책 바꿔보는 날' 캠페인을 벌입니다. 교회내 출판사책 5권을 가져오시면 바오로딸 신간 1권으로 교환해 드리고 모아진 책은 복지기관, 교도소, 공소, 군부대 등에 기증합니다.
(성서, 기도서, 성가책, 잡지류는 제외)
장소 : 전주 바오로딸 서원 / 252-3398
기간 : 10월 9일~31일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기도' 발간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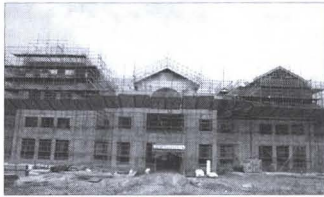
-정가 : 1부당 2,000원
-할인가격 : 30부 이상 구매시 20% 할인,
50부 이상 구매시 30% 할인
-문의처 : 교구청 사목국(285-0041~3)
* 본당 및 성모불당에서는 사목국으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라며, 날권 구입은 교구청 온가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먹고 자란 배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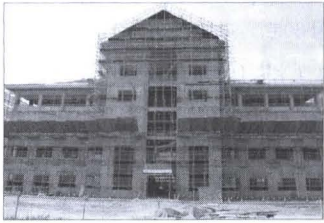
원평 성당 신자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키운 배가 올해도 맛있게 열렸습니다. 사랑으로 경작한 맛있는 기도 배 드시고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듬뿍 받으세요.
주문신청 : 543-0881(원평성당)

<2007년도 군장대학 사회복지계열 가톨릭반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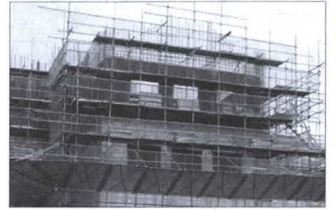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이상, 가톨릭 신자(예비자 포함)
 - 성직자 · 수도자
 - 가톨릭사회복지시설 근무자
 - 가톨릭관련기관 근무자
 - 일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근무자
 - 4대보험 가입 직장 근무자나 자영업자
- 제출서류 및 양식 : 군장대(www.kunjang.ac.kr)
전주교구 사회사목국(www.jcatholic.or.kr)에서 다운로드
- 모집인원 : 30명 / 4.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0월 2일~10월 31일
- 수업장소 : 전주 사랑의 집
- 수업방법 : 주3회(월·수·금 오후 6시) / 원격(사이버)교육 / 자율학습
- 수업연한 및 장학특전 : 2년(4학기) / 전원특별장학(등록금 : 학기당 130만원)
- 문의 : 450-8338, 011-657-6538 채왕석 교수
450-8090, 011-637-8745 오교성 교수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9월 23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삼삼례, 황등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옥봉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임실, 고창, 진안, 둔율동, 나바위, 고산, 인후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서학동, 장계, 여산, 무주, 신태인, 오룡동, 쌍교동, 신평, 나운 2동, 금암동, 중앙, 서신동, 영등소라
- 신축기금 배정액 50% 이상 납부한 본당 :
월명동, 용안, 복자, 대야, 함열, 시기동, 수류, 팔마, 우전, 조촌동, 덕진, 소양, 숲정이, 영등동, 신동, 솔내, 우림, 봉동, 노송동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7,177,132	47.85%
사제단	1,000,000	1,029,369	102.94%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569,665	37.98%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8,997,974	49.99%

한가위 차례상 차리기와 차례 예식

한가위다. 신자 가정에서도 추석 명절에 선조 은덕에 감사드리는 차례를 지낸다. 그러나 일반 가정과는 차례상 차림이나 차례 예식이 다르다. 차례상 앞에 십자가를 모시고, 기도와 성가를 하는 모습은 일반 가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차례 대신 연도를 바치는 신자 가정도 있지만, 차례를 지내는 신자가정을 위해 추석 차례상 차리기와 예식 순서를 안내한다.

▲상 차리기

제상은 집안 관습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형식을 갖추려 하기보다는 정성껏 차리되 평소 고인과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차린다.

향상에는 향로와 향합, 촛대 외에 중앙에 십자가를 모신다. 벽에 십자고상이 걸려 있는 방향으로 상을 놓으면 별도로 십자가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음식을 올리기 전 병풍을 치고 상을 편 후 영정을 놓는다. 병풍은 꼭 치지 않아도 되고, 영정 대신 위패를 놓아도 된다. 연령회연합회에서 위패 모델을 내놓은 것이 있다. 영정 앞 첫줄은 손가락을 놓는 대접과 잔과 받침대, 송편을 놓는다. 둘째줄은 어동육서(魚東肉西)라 해서 상 오른쪽(동쪽)에 어적(생선 구운 것), 가운데에 소적(두부 구운 것), 왼쪽(서쪽)에 육적(고기 구운 것)을 놓는다. 셋째줄은 3가지 종류의 탕을, 넷째줄은 좌포우혜(左脯右醢)라 해서 왼쪽에는 포를, 오른쪽에는 식혜를 놓는다. 그리고 다섯째줄에는 홍동백서(紅東白西)라 해서 붉은 과일을 오른쪽(동쪽),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평화신문에서 발췌〉